

조사료 수입 쿼터 늘렸지만 '효과 제한적'

미국 브라질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의 가뭄으로 국제 곡물가격이 폭등하자 정부가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축산업계가 꾸준히 요구해온 수입건초 쿼터 증량을 승인했지만 조사료 가격안정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80만톤이었던 수입건초 쿼터를 100만톤까지 확대키로 했지만 건초 주요 수출국인 미국 내 극심한 가뭄으로 조사료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수입건초 미국의존도는 약 80%대로 절대적인 수준이라 할 수 있다.

미국 농무부는 현지시각 8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가뭄 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가뭄으로 조사료 확보가 쉽지 않은 축산농가를 위해 380만 에이커의 목초지를 새롭게 제공해 건초수확과 방목을 하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축산업계 특히 조사료 이용을 하는 축우부분은 가뭄에 목초지 상당수가 훼손되면서 긴급 출하하는 농가들이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빠르면 내년 하반기 사육두수 감소에 따른 축산물 가격 폭등이 예고되고 있다.

결국 우리 축산업계의 요구에 따라 수입조사료 쿼터 증량에 정부가 나섰지만 미국 가뭄 여파로 수입건초 확보도 쉽지 않고 설사 확보된다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낮은 가격에 수입조사료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현재 수입건초가격은 전년 말 대비 약 10% 정도 가격이 상승한 상황이다.

축산업계에서는 지난해부터 조사료 쿼터 증량과 쿼터 운용을 탄력적으로 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국내산 조사료 수요가 줄 것을 우려해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지난해 벼 재배 면적 감소로 국내산 조사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벼짚 품귀현상이 발생하자 부랴부랴 대책을 마련 올 상반기 쿼터를 조기 집행하며 조사료 가격 안정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국내 축우업계가 2008년 이후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배합사료 위주 사양에서 조사료 중심으로 사양체계를 점차 전환하고 낙농업계에 이어 한육우 농가들도 TMR사료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건초의 수요

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국내산 조사료 중 벼짚을 제외한 조사료는 하계 옥수수 사일리지, 동계작물인 호밀이나 이탈리아라이그라스 등을 활용한 사일리지로 습사료다 보니 TMR 제조시 수분조절을 위한 건초 확보는 TMR 사료 품질을 좌우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산 건초인 벼짚의 수확량이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다 수입건초마저 매년 쿼터를 동결 또는 축소하면서 한정된 쿼터 내에서 건초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말았고 조사료를 직접수입하지 못하는 자가TMR 제조 농가들을 중심으로 건초를 구매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도 속출하고 있다.

어쨌거나 뒤 늦게라도 정부가 수입조사료 쿼터를 증량했으니 다행이나 이제 앞으로는 미국내 가뭄상황에 따라 조사료 수입 가격 그리고 수입 가능한 물량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 업계관계자는 “4대강 하천부지에 조사료 재배가 허가되면 이번에 증량한 조사료 쿼터의 절반가량은 국내산 조사료로 대체될 수 있다”며 “유휴지 활용을 통한 조사료재배에 범정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아지 생산안정제 '육우 끌어안기' 필요

육우 송아지(젖소 수송아지)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한우 송아지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 및 적정 사육마릿수 유지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중인 '한우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에 육우를 포함시켜 산유농가 및 육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장은 지난해 12월 육우 송아지 가격이 폭락하면서 송아지 거래가 실종되고 낙농가의 수송아지 처리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 배정식 부장은 “육우의 경우 한우나 수입쇠고기 시장동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아무런 보호장치가 없다”며 “한우 사육마릿수 증

가와 쇠고기 수입 확대 등으로 육우 송아지시장은 항상 위험요소를 안고 있고, 특히 젖소 수송아지의 경우 육우 가격이 폭락하면 아예 거래조차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지난 5년간 육우 송아지 가격은 쇠고기 수입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초유떼기를 기준으로 2007년 47만5,000원이던 젖소 수송아지 가격은 2010년 말 24만9,000원, 2012년 8월 상순에는 4만4,000원까지 폭락했다.

조주헌 농협 축산경영부 차장은 "낙농의 경우 착유소가 송아지를 생산해야 원유를 생산해 일정 규모의 목장을 유지하기 위해 육우 생산이나 판매가 불가피하다"면서 "한우 사육마릿수나 쇠고기 수입량이 증가해 전반적으로 쇠고기 가격이 하락하면 낙농가들은 육우 송아지 판매에 곤란을 겪어 송아지 처리 문제나 동물복지 문제가 언제든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경기 포천의 한 낙농가는 "육우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시행될 경우 생산비를 낮춰줘 결과적으로 원유 가격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육우 사육농가의 경영 안정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축산학계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쇠고기 수입 자유화가 육우산업에 미칠 타격에 대처하기 위해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화우와 젖소(육우)를 포함시켜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 젖소(육우)가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면서 "원유 생산량이 기준원유량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육우에도 송아지 생산안정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 사료값 대책 '속빈 강정' 될까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0일 사료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축산농가의 사료 외상 구입을 현금 구매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신규로 500억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융자 지원하고 ▲사료업체의 원료 구매자금 지원 규모를 올 600억원에서 내년에는 950억원으로 확

대하며 ▲군부대 내에서도 조사료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특히 축산농가의 현금 구입비 지원과 관련해 "현재 사료를 외상으로 구입하는 농가 비중이 약 50% 달하며, 이로 인해 연 12~18%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어 사료 구입 비용이 증가한다"며 "현금으로 사료를 구입하면 외상거래에 비해 약 20~25%가량 저렴해진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축산단체와 농가들은 "농식품부의 이 같은 대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경기 용인의 한우농가 윤오씨(55)는 "사료 구입비를 융자 조건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지원하게 되면 담보 능력이 있는 소수 농가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며 "아무리 지원 규모가 많아도 보조금 형태가 아니면 소규모 영세 농가로선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배합사료 생산 업체들도 불만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7사료의 한 간부는 "지난해 전체 사료업체들의 원료 구입비 51억달러(5조6,000억원)를 감안하면 정부가 지원키로 한 950억원은 전체 원료구입비의 1.69%에 불과하다"며 "요즘 같은 저금리시대에 4%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사용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조사료 재배를 늘리기 위해 군부대를 적극 이용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군부대 훈련장 등에는 평지가 드물어 기계화작업에 의한 신규 조사료작물 재배가 어렵고, 기껏해야 자생하는 갈대 정도만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료값 대책에 포함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축산 관계자들의 공통된 견해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 관계자는 "조사료 재배의 최적지인 4대강 하천부지는 활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폭발 사고 위험이 있는 군 훈련장에 조사료를 재배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사료값 인상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농가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이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